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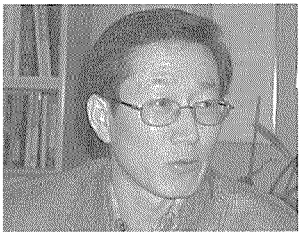
도서관사람들

정운현

정운현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서이지만, 뭔가 색다름이 그를 둘러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요즘 표현으로 "엠피(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 또는 욕구) 사서"라고 할까? 자신은 결코 외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기자로서 더 많이 알려진 탓인지 도서관계 사람들은 자신이 외도했다고 한단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은 사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긴 그는 언제나 자신이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여러 견해를 들어보고자 4월 12일(금) 오후 대우빌딩 복합동에 있는 Ohmynews 사무실을 찾았다. 여느 언론사들이 그렇듯, Ohmynews 사무실에 한 걸음 들어왔을 때의 느낌은 조금은 어수선했지만 생동감이 넘쳤다. 사무실을 이리저리 둘러 볼 때쯤 그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일이 많은 탓인지 다소 피곤해보였지만 첫눈에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전해져 신비감마저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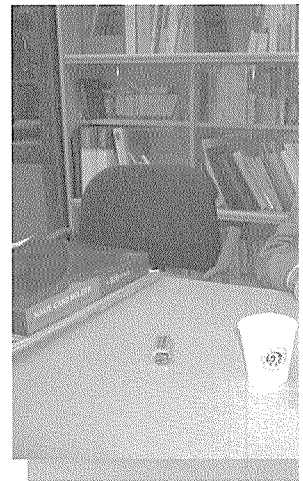
이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준비해간 질문들로 그의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씩 풀었다.



정운현 Ohmynews 편집국장은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경북대 도서관학파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조사부 기자, 부설 현대사연구소,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소,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팀 기지를 거쳐 1998년 8월에 『대한매일』로 자리를 옮겼다. 2002년 1월 10일부터는 Ohmynews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천일파』, 『천일파 죄상기 창씨개명』, 『중국, 대만 천일파 재판사』, 『서울시내 일제유산답사기』,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호의, 백년의 기억들』, 『중언 반민특위』 등이 있다. 이 밖에 천일문제연구회의 총무 겸 『무크/천일문제연구』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잔재 19가지』, 『천일변절자 33인』, 『반민특위』, 『일제침략사 65집면』, 『조선 총독10인』 등을 공저로 출간하였다.

오마이 뉴스 편집국장으로 오게 된 계기를 물은 어느 한 자에게 "그간 종이신문에 재직하면서 안팎으로 한계를 절감했고,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확장 양상에서 결국 인터넷신문이 우세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의 특성 때문에 종이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이 우세할 것이라고 판단하신 건지요? 아니면, 신문 외의 매체(즉.. 도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사회 인프라를 생각할 때 생활의 큰 인프라 중 하나가 컴퓨터이다. 컴퓨터는 연속적인 우리의 생활 문명기구다. 도구가 컴퓨터라면 컴퓨터를 이용한 책, 뉴스, 오락, 정보탐구 등 그런 쪽으로 인프라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전자매체가 발달해도 종이매체는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큰 흐름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의 힘, 네티즌의 힘 등이 부각되면서 사회의 중추세력이 바뀌었다. 중추세력이 사용하는 매체가 종이 가 아니라 전자매체이다. 큰 물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사적영역이 확장되면서 공적영역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도서관에서도 문제이다. 공적영역에서 도서관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적영역이 확장되면 생산자와 이용자가 바로 직거래를 하게된다. 따라서 중간 영역인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도서관이 잘 소화해 내려면 도서관은 또 다른 정보를 가공하는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생산능력을 가져야 한다. 생산자가 할 수 없는 분야, 예를 들면 도서관이 강점을 가진 DB를 활성화시키고, 차별화된 자료를 갖추어 도서관의 전문화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현재 거의 차별이 없다. 나 같은 경우는 일제말기 신문을 보기 위해서는 종로 도서관에, 경성구립도서관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남산도서관 5층에, 경성제대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서울대 도서관에 간다. 이처럼 독자적인 새로운 정보생산자(IP)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도서관은 “주민들의 지적 휴식터가 되어야 한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이야말로 이 시대에는 변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계도 최근 들어 변화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지도층들이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 등 각계의 도서관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다르다. 난점 중의 하나가 사회지도층이나 언론에서는 대부분 도서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 각 계에서 거론되는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도서관에 있어서 공부방 개념, 독서실 개념이 너무 강하다. 도서관을 바람직한 들로써 바라보는 모델이 정착 되지 않았다. 그것은 초창기 우리의 문화시설, 근대적인 도서관 시설이 도입되면서 도서관이 문화향유 기관으로 도입되기 보다는, **향학열을 불태우는 보조시설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서들도 어린이나 대개의 이용자들한테 **고급적인 정보를 찾아주기** 보다는



정운현 편집국장은 문화부 출범을 계기로 월간 중앙 1990년 4월호에 “공공도서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란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 도서관 분야를 “무풍지대”라고 비판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편적이고 하급적인 정보, 시험과 관계되는 자료들을 주로 찾아주는데 익숙해 지다 보니까 도서관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낮게 된 것 같다. 인식이 낮다 보니까. 사서들도 종합적인 서비스(full-service)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사서를 기능적으로 낮게 보려는 인식이 문제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관리자, 힘센 관리자에 대해 힘을 못 펼 사서, 이용자들은 사서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기 보다는 단순한 정보나 묻는 경향이 짙어졌다. 빨리 정당한 자리 매김을 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명인의 입을 통해 도서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서는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많은 사서나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대 사회적인 홍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많은 언론이 독서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언론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다. 언론이 개입하고 있는 독서운동에 대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독서운동의 판이 안 만들어졌다면, 그 판을 언론이 만들면 어떻고, 도서관이 만들면 어떻고, 출판이 만들면 어떤가? 그 판이 만들어지는 걸 지켜보고, '내가 뭐 도울 거 없나?' 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판을 만드는데, 초기단계에서 참여하지 못했다면 뒤에서라도 후원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판의 흥을 이어가는 역할을 도서관이 하면 된다. 따라서 바톤을 받을 여력이 도서관 내부에 존재해야 한다. 지금 꾸러진 판에서 훗날 한 명이 빠지게 되면 도서관계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고, 또 한사람이 빠지게 되면, 도서관계 사람 한 사람이 또 들어가고 하다보면 결국은 도서관계가 이끌고 가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마이뉴스는 우리시대 주요한 인물들과 심도깊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들의 사진 앞에 선 정운현 편집국장.

사서, 도서관학자, 운동계, 나아가서 이용자그룹 등이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결속을 다지는 등 대중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의 독서운동은 자생력이 없는 운동이므로 무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동안 내부인력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제는 도서관계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던 대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발표, 성명서 제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 이용자, 대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도서관계에는 명망 있고, 대중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빨리 누군가가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친일연구는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태생적인 계기가 있어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니다. 신문·잡지에서 우연히 임종국 선생님의 글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 동안 배워온 것에 대해 혼란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우리에게 민족지사로, 명망가로 알려진 사람들이 친일파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진짜인지 알아보고 싶어 찾아 보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으며,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역사운동에 눈을 떴고, 사회 기성에 대해 반항심을 가지게 됐다. 보편적인 교육체제라든지, 인식체제라든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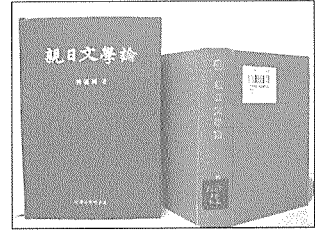
임종국 선생님 돌아가신 1주기 때 창작이리는 개념보다는 선생님을 기리는 책을 내기 위해 『친일파 그 인간과 논리』라는 책을 냈다. 그 이후 해마다 갈수록 나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친일파에 관련된 글에 대한 청탁도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호외연구자로 알려져 있는데, 호외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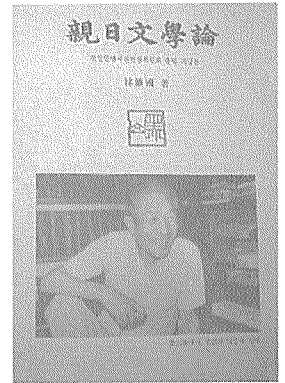
친일파 연구를 위해 일제시대 신문의 원본을 많이 보았다. 옛날 신문 원본 철을 보다보니 그 안에 원본 호외가 끼어져 있었다. 호외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찾아보자라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찾아보니, 1894년에 호외가 처음 나왔다. 그래서 1994년에 ‘호외 100년 전’을 연 것이다. 현재 1000여 점 이상 모았다. 공에 비해 알아주는 점이 별로 없어 호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외는 즉 “미디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호외 연구는 손에 꼽는 나의 저작이 될 것이다.

친일파라고 거론된 사람들이 쓴 책이나 자료들이 도서관 장서로 비치되고 이용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독부 건물을 부끄러운 역사를 전시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삼았다면 그것처럼 좋은 교육이 없었을텐데, 엉뚱한 용도로 써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바로 내가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듯, 제 용도로 활용만 가능하다면 오히려 일제 시대의 건물을 증거물로 남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친일파들이 쓴 책이나 자료들도 그 사람에 대한 연구가 반듯하게 되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면 굳이 도서관 서가에서 빼낼 필요는 없다고



左: 임종국저. 2002. 『친일문학론』 기념본 발간. 민족문제연구소.
右: 임종국저. 1966.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2002년 1월 25일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문학론』 기념본 표지



정운현저. 1997. 『호외백년의 기억들』. 삼인.
1994년 「호외100년전」을 열어 일반에게 호외의 전모를 공개하였다.

생각한다. 구별할 수 있는 공공작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전제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균형 잡힌 선지식을 갖춘 다음에 비치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서관계는 많은 논란과 논쟁들을 밖으로 분출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도협에서 강좌가 있으면 불러달라.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나도 조금 별나니까. '외도한 사서들' 이런 강좌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도서관학을 전공했지만,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과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학과 교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탐방하고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협이 이런 일을 해서 기부도 받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지 말고 매체를 통해 사서들의 목소리도 내고, 내부 비판을 하면서, 깨우쳐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서관 매니아, 도서관계의 논객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서관계도 엽기적인 파격이 필요하다.



〈대담을 하고 있는 정윤현 편집국장(右)와 이용훈 기획부장(左)〉

- 대담 : 이용훈(기획부장)
- 기록·정리 : 심효정